

대학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 학생에세이 사례 분석

이은실(한동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의 독특한 특징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다. 대학수업에서 이뤄지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관심과 배려를 강조하는 태도적인 접근에서부터 신학적·성경적 원리를 전공지식에 연결하는 접근,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학문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접근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인 학생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과정이나 활동이 그러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이러한 통합적 활동을 통해 얻는 결과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사례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였다. 학생들은 전공지식의 원리나 이론의 전제를 비판적 사고로 분석하는 접근, 성경의 진리와 학문의 진리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성경의 원리를 전공분야에 적용하는 접근, 혹은 기독교세계관으로 교과목의 지식을 재조명하는 것을 수업에서의 통합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통합을 시도한 인물이나 사례를 통한 모델링이 많았고,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통해 통합의 시각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통합 활동을 통해 사고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게 되었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뿐 아니라 삶과 진로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서 결론 부분에서는 교수자들의 통합에 대한 인식 연구와 학문분야별 통합 접근에 대한 차이 등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통합, 신앙과 학문, 기독교대학, 교수법

2010년 5월 10일 접수; 6월 22일 수정; 6월 23일 게재확정.

* 이 연구는 2010년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에 의한 것이며 2010년 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I. 서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대학의 독특한 특징이다(유명복, 2006; 전광식, 1995; 조용훈, 2004; Holmes, 1987; Kang, 2007). 미 기독교대학의 연합체인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사명문을 보더라도 연합체에 참여한 모든 기독교대학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학문을 익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CCCU, www.cccu.org). 미국의 기독교 대학으로 잘 알려진 휘튼대학교의 총장은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을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이슈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차원이나 개별 수업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구체화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Dockery, 2000).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기독교대학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독교대학의 독특한 성격을 묘사할 때 ‘신앙과 학문의 통합’ 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일관성 있게 잘 발달된 기독교 철학을 드러내거나 구체적인 학습 현장이나 교육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사용되기 보다는 대학의 사명이나 슬로건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Badley, 1994).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명이 없이 영성개발을 위한 교과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경이나 기독교 이해를 위한 교과목 운영, 기독교수와 학생간의 공동체 활동 등이 통합의 예로 오해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Beers & Beers, 2008). 글랜저(Glanzer, 2008)는 해스커(Hasker, 1992)의 글을 인용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지식, 특히 여러 학문분야에 드러난 인간의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학문적 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을 강조한 글랜저와는 달리 대학수업에 적용할 때 지성 뿐 아니라 감성과 의지, 태도를 모두 함축한 전반적 의미의 통합을 말하는 이도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용어를 기독교대학의 특성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홀즈(Holmes, 1987)는 통합의 시작점은 기독교 학습 공동체의 특성인 관심과 사랑이 드러난 태도적 통합이라고 하였다. 대학교육 현장에 있는 학자들에게서 보는 이러한 이견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기독교대학의 사명이자 교육의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대학의 수업에서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어 준다.

최근 한 학자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느라 실제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접근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서 어떠한 개념의 통합이든 실제 신앙과 학문의 통합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Badley, 2009). 즉, 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표현은 그 용어를 사용

하는 사람의 신학이나 신앙에 따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그 의미나 그 의미를 판단하는 준거가 무엇인지 논의하여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통합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 할 때 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인지,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인지, 가르치는 현장 상황에서의 통합인지, 기독교기관의 문화나 정신면에서의 통합인지가 필요하다. 이점이 명확해져야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누구에게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의 통합을 지향하는지 명확해져야 과연 그 구체적 상황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평가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사실 그간 이루어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즉,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개념과 그 근간이 되는 철학 및 신학, 그리고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에 비해 실제 대학현장에서 교수와 학생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핀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몇 제한적 연구의 하나인 노수(Nwosu, 1999)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지적 접근, 삶의 양식, 제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적 접근이라 함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거나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삶의 양식은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마지막 제자화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가 보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지적요소, 삶의 양식 요소, 제자도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교수들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마티어스(Matthias, 2008)는 기독교대학에서 신앙과 학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개별 교수의 수업수준에서 정의하고자 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의가 어렵다고 하였다.

과연 대학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학생의 책임인가 아니면 교수가 할 일인가의 질문도 논의거리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수업설계를 통해 이뤄진다고 접근하면 결국 수업내용과 학습활동을 계획하는 교수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학생의 학습과 내적 통합에 초점을 둔 학생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Burton & Nwosu, 2003). 대학수업의 결과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통합이 진행되는지

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교수 대상의 통합연구보다도 적어서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Burton & Nwosu, 2003; Sherr et al., 2007). 기독교대학의 학생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내적 통합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도울 것인가를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인 학생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학생들이 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의 과정과 활동이 그러한 이해를 돕는다고 보는지, 그리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연구는 교수자들이 개별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앙과 학문의 통합수업 계획과 진행 면에 시사점을 얻고, 교수역량개발의 관점에서는 통합수업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육목표로 삼을 때 학생들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되리라 본다.

II. 기독교 대학교육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델

기독교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홈즈는 ‘신앙과 배움의 통합(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내용을 정의한 학자로 꼽히고 있다(Glanzer, 2008; Son, 2006). 홈즈(1987)에 의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네 가지면, 즉 태도적, 윤리적, 근본적, 그리고 세계관적 접근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태도적 접근은 통합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교수와 학습자가 교육이 기독교적 사명임을 함께 공유하며 기독교 학습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배어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윤리적 접근은 각 학문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분석하고 그 분야에 적합한 기독교적 가치판단과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접근이다. 또한 윤리적 접근에서는 사실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야에 적합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을 탐구하며 성경적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 접근은 모든 학문이 철학 및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보고 신학적·성경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전공지식을 연결하는 접근이다. 마지막 세계관적 접근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고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 학문, 문화 등을 모두 이러한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통합된 노력이라고 본다.

홈즈가 말한 네 가지 유형은 실제 개별 대학의 수업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 레전트(Regent) 대학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 위원회’를 두고 대학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9가지 접근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Regent University, www.regent.edu). 그 중 ‘신앙 나눔 접근’은 홈즈가 말한 ‘태도적 통합’에 가깝고, 주제나 의미를 분석하는 어휘적 접근은 ‘윤리적 통합’에, 그리고 기독교적 원리를 전제하고 전공내용에 적용하는 기관적 접근은 ‘기본적 통합’과 비슷하여서 홈즈가 제시한 통합유형의 구별이 실제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1> 레전트 대학에서 제시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9가지 접근

제목	내용
학생주도 접근	학생 스스로 통합을 시도
자율적 접근	교수의 성품이나 사용하는 교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우
신앙 나눔 접근	교수의 신앙경험이나 나눔을 통한 통합
교재적 접근	성경이나 기독교적 교재를 통한 통합
전문적 접근	학생들이 통합을 시도하도록 개별 교수만의 방법이나 글을 통해 시행
경험적 접근	수업에서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성경적 접근 시도
어휘적 접근	단어나 주제의 의미 분석을 통한 통합 시도
기관적 접근	기독교적 원리를 관련 내용에 적용
도덕적 접근	기독교적 시각과 가치 형성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한 통합

기독교대학에서 접근하는 통합과정을 신앙과 학문 두 영역의 관계로 제시한 학자도 있다. 코스그로브(Cosgrove, 2006)는 두 영역의 관계를 네 가지로 묘사하여 통합의 모델로 소개하였는데 첫째 모델은 ‘절대 권위 모델(Sole authority model)’로 성경의 말

씀을 학문이나 배움보다 우선하는 위치에 두는 입장, 즉 ‘학문을 넘어선 신앙(faith against learning)’이라는 부제가 붙은 입장이다. 이 경우 성경말씀은 틀림없으나 사람은 말씀의 해석에 완전할 수 없음을 간과하기도 하며, 때로 지성이나 이성을 무시하거나 학문적 탐구에 대해 반감지 않은 비지성적 입장을 취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통합의 모델은 ‘각각의 권위 모델(separate model)’ 로써 학문과 신앙이 각각의 영역이 있고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원론적 입장에 서서 세상에 대한 지식은 학문영역에서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된다. 지식이라고 할 때 신앙과 학문이 서로 보완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학문 영역에서의 지식이 충돌할 가능성을 다루지 않고, 학문분야의 기초적 기반이나 사고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모델은 ‘동등 권위의 모델’ 이다. 신앙에 더해진 학문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델은 성경과 학문적 지식이 진리의 원천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며, 두 가지가 연결될 때 더 생산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은혜로 주신 학문적 작업의 결과는 모두 특정 주제의 이해를 돕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문적 내용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아무래도 학문의 지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은 성경에 흐르는 기초 원리보다는 특정 학문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나마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결국 전공지식이 전체를 좌우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델은 ‘근본적 권위 모델’, 즉 신앙을 학문의 기초로 보는 입장이다. 근본적 권위란 세계관을 의미하며 이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모든 학문을 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을 할 때 어떤 신념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며 사람이 특정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배우는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문을 할 때 특정 지식의 기반이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비판적 시각으로 점검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러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모든 학문분야를 철학화 한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비어즈와 비어즈(Beers and Beers, 2008)는 여러 학자(예, Wolfe, 1987; Harris,

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립전략’에서 ‘변혁전략’, 그리고 ‘재구성전략’의 통합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코스그로브의 네 가지 모델 중 첫 번째를 제외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여기서 ‘양립 전략’이란 성경말씀과 학문탐구지식이 양립 가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말씀과 학문 지식의 기본 가정, 연구방법, 지식내용, 해석 면에서 공통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어 접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문지식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주로 발견된 양립성이나 융화성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변혁 전략’이란 학문분야와 기독교세계관에서 말하는 내용이 둘 다 양립하는 면도 있으나 동시에 학문분야에서 주장하는 지식이나 기초에 깔린 가정이나 해석이 기독교세계관적 시각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는 접근을 말한다. 마지막 ‘재구성 전략’은 기독교세계관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해석하여 기존의 주장이나 지식에 깔린 기본가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대체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흠즈는 태도와 인식의 요소를 다 포함하여 통합의 시작점부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단계까지 제시하였다면, 코스그로브의 네 가지 모델이나 비어즈와 비어즈의 전략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바람직한 모델로 기독교 세계관적 통합을 강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비어즈와 비어즈(2008)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지식을 습득, 조직, 제시하는 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면서 기독교 교과목, 영성 프로그램, 기독교 문화, 나아가 특정 교과부분에 성경적 요소를 첨가하는 접근을 통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오해라고도 했다.

모든 학자가 강조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모델, 즉 기독교 세계관으로 지식을 재조명하고 재구성 하는 것은 실제 대학수업의 현장에서 교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교수법적 통합’ (Burton and Nwosu, 2003)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교수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버튼과 뇨수(Burton and Nwosu, 2003)는 ‘교수법적 통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교수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학생들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수법과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교수-학습활동은 구체적인 학습 성과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함양, 내용과 관련된 윤리적 주제나 딜레마 탐색, 전공분야에 깔린 기초 점검 등을 포함한다. 통합을 위한 학습활동이 부족한 것은 오직

교수의 통합기술과 상상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Burton and Nwosu, 2003: 107)

그러나 세계관적 혹은 재구성적 통합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여도 대학수업에서 실제 모든 학문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업모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Hasker, 1992; McMinn et al., 2009; Moon, 1997). 이러한 어려움은 학문분야의 특징에 따라 통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버튼과 노수(2003)는 인간의 본성이나 목적, 삶을 다룬 영역은 기독교세계관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나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경우는 어려운 분야로 꼽고 있다. 세계관적 통합이 가시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비단 학문분야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동일한 학문 내에서도 다루는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의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실험적인 결과에 바탕을 두는 영역, 예를 들어 두뇌연구나 지각과 같은 분야의 내용은 기독교적 시각에 대해 덜 민감하나,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학습이나 동기의 영역은 기독교적 조명이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Johnson and Jones, 2000).

실제 대학수업에서 일어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자료는 이러한 이론적인 모델을 뒷받침하는가.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연구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대학 교수 8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사이트 외(Sites et. al, 2009)의 연구는 예외적인 셈이다. 사이트는 기독교대학의 교수 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하여 이들이 통합을 어떻게 정의하며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교수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교과과정에 반영하거나(예, 인체학 설명시 창조자의 지적설계 연결) 성경 말씀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였고(예, 문학의 경우), 기독교의 가치를 전문분야에 강조하기도 하였다(예, 경영의 경우). 더불어 그들은 통합이란 교육내용만 아니라 수업 현장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생 그리고 학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수들이 자신의 신앙이 현장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신앙이 학문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것이 진정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고 결론지었다. ‘존재론적 통합’으로 명명한 이러한 분석은 엔트위스틀(Entwistle, 2004)이 말하는 ‘공적인’ 면과 ‘개인적’ 면의 통합

을 둘 다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티어스(Matthias, 2008) 역시 특정주제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현상의 의미를 분석하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곱 교수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심층인터뷰, 수업관찰, 자료분석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수들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생각하는 통합에 대한 정의와 인식, 통합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합의 대가인 교수들은 학문분야에 대한 열정, 헌신된 신앙, 신앙과 학문과 삶의 영역을 통합하는 온전함에의 갈망, 겸손, 변화 향한 열린 마음 등이 공통되게 드러났다.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신앙과 대학문화의 배경을 가진 다수의 교수로 확대할 때도 동일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 혹은 ‘존재론적’ 통합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특성이 ‘공적인’ 혹은 내용지식 면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항상 같이 일어나는지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바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미 기독교대학연합체에 소속된 7개 대학 120여명의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드러내는 지표로 ‘관계’와 ‘역량’으로 구분하였다(Sherr et al., 2007). 관계 면에서는 교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목적과 방향 속에 수업의 현장이 포함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교수가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잘 하는 교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중요한 ‘역량’면에서 볼 때 학생들이 경험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요소는 다양하였다. 학생들이 통합이 잘 되었다고 인식하는 수업은 성경말씀을 적용한 학습주제, 다양한 상황에 기독교신앙 적용, 신앙과 학문 통합과정에서의 개인적 간증, 신앙의 삶과 학문을 모두 중시하는 접근, 나아가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이 살아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교수의 역량이 두드러졌다.

버튼과 뇨수(2003)의 연구에서도 기독교대학의 학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다양하여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된 행동과 태도’로부터 ‘기독교적 원리나 가치를 수업방법이나 내용지식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모든 지식의 바탕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특히 학

습과정으로서의 통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교수가 학생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일 때 통합의 경험을 돕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연구는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한 학문의 특성에 따라 통합의 의미와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학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론적인 모델이나 교수자 혹은 학습자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학생시각의 통합의 의미와 활동 (Burton and Nwosu, 2003)

제목	내용
학습과정으로서의 통합	기독교적 가치나 신념이 수업진행이나 방법에 반영되는 경우
연결로서의 통합	성경말씀이나 원리를 드러내어 의도적으로 내용지식과 연결
분위기나 배경으로의 통합	기독교 가치가 교수나 학생의 행동과 태도에 반영된 분위기
동시병행으로의 통합	신앙과 지적 사고가 동시에 강조되고 진행되는 경우
적용으로서의 통합	내용지식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접근
기본 전제로서의 통합	신앙을 모든 지식의 바탕에 전제로 두는 경우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의미, 수업에서의 통합을 돕는 수업진행이나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통합의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 대학교에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수업사례 에세이를 분석하였다. 이 에세이 수집을 위해 교내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공모전은 교내 교육지원기관의 주관 하에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수업의 사례를 3쪽 내외의 에세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총 10여명의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에세이의 내용은 자유롭게 하되 왜 특정 수업이 통합사례가 되는지 어떤 유익과 배움이 있었는지 언급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공모전에는 총 25명의 학생들이 에세이를 제출하였고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통합의 정의와 수업운영, 수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모두 에세이에서 다룬 총 16편을 본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에세이 내용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한 총 3명의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한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의 학년, 성별, 사례과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3〉 에세이 작성 학생의 배경 분포

학년				전공		교과목명
1	2	3	4	인문사회	이학공학	건축학입문, 사회보장론, 직업과소명, 철학개론, 역사와 인간, 언어학개론, 정치학, 과학기술과 인간, 통역학, 전통무예와 태권도, 경제학입문, 유전학, 심리학, 대중문화론, 사회복지론
1	6	1	8	12	4	

3. 내용분석 방법

수집한 에세이는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였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에세이에서 세 가지 연구 질문, 즉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인식, 통합을 돕는 수업활동, 그리고 통합수업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내고 비슷한 응답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탐색적 내용분석의 과정을 따랐다. 에세이 분석은 연구자를 비롯하여 총 3인이 참여하였다. 먼저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에세이 내용을 분류하였고 다음 그러한 분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내용분석의 타당도는 총 3인이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근거내용을 제시한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질문별 유형구분과 근거내용의 일치도는 첫 질문의 경우 80%, 두 번째 질문은

89%, 세 번째 질문은 85%가 되어서 질적 연구로서의 양호도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대학수업에서 이뤄지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질문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었고 각각의 분류 내용에 대해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4〉 질문에 따른 에세이 내용 분류

질문	응답 분류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학문원리나 이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 말씀이나 기독교교리로 학문 해석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문 재조명 학문과 신앙이 하나라는 초월적 접근
통합을 돕는 학습활동은 무엇인가?	사례소개 및 모델링, 질의응답 및 토론, 자기주도적 점검
통합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고의 다양성 인식, 신앙적 관점의 학문이해, 신앙정체성 확립, 삶의 목적과 방향 명료화, 타 학문으로 기독교적 조망 확산

IV. 분석 결과

1.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교과목에서 다루는 원리나 이론의 전제를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

질문하는 방법, 원리를 분석하는 방법, 개념의 전제를 파악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 이 영역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는 그 학문 분야의 사고의 틀을 분석해야 한다는 시각을 뜻한다. 즉,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그 학문분야의 사고의 틀을 분석하고 재점검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을 갖은 학생들은 전체 작성자 중 절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질문 하는 방법, 즉 각종 현상에서 원리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가 아닌 '왜'를 배우기 위해 힘쓰기를 배운다. (건축학 수강자)

많은 교과서의 이론들이 진화론 쪽으로 치우쳐 있고, 편협한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수님들께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이론들을 접근할 수 있는 눈을 더해 주십니다. [중략]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진화론적인 의미를 잡아주시고, 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수강자)

이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국제개발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여기에서 비판적인 생각이란 하나의 단어, 문장이라도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깨달음이 생겨서 무척 신기하고 유익했다. (사회보장론 수강자)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탐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만약 성경적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자의 전공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어떤 학생의 경우는 철학적 방법과 신앙적 사고를 접목하면서 병렬적으로 통합하려 하며 신앙에 대한 철학적 질문 자체가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보기도 한다. 교과목 지식의 전제와 가정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신앙인의 과제라고 인식하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한결 같이 이 과정이 치열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철학적 지식과 신앙적 지식의 연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적 사고 안에 갇혀 신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중략] 그러한 의미에서 학문과 신앙적 사고의 첫 만남을 가져다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자신이 믿는 신은 자신 안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근대 이성이 가진 한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진다. (철학개론 수강자)

참으로 잔인하게도 친절하게, 언제나 우리를 어떠한 장면 속에 방치하고 스스로 정

의(Justice)라는 것의 정의를 제각각 내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묻고 다투고 배우고 싸우고 사랑하게 한 후, ‘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대답을 스스로 마련토록, 참으로 지독하게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Justice 수강자)

성경말씀이나 기독교적 원리를 학문적 진리에 연결

이 유형의 학생들은 성경의 진리와 학문의 진리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성경말씀이나 기독교적 원리를 배우는 내용과 연결시키거나 적용한다. 앞서 다룬 시각은 학문영역에 전제된 가정이나 조건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적 시각과 대조하여 ‘변혁’을 강조하는데 비해 이 경우는 각 권위를 인정하나 학문의 기초나 전제를 점검하지 않고 ‘양립’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학생들은 ‘공존’이나 ‘동행’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유형으로 접근한 학생은 총 16명중 4명이 해당되었다.

제가 찾는 그것은 바로 특별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생소한 것도 아니고 손쉽게 일반화된 것도 아닌 개개의 특성들을 인정하는 다양한 생각들의 공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조명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와 인간 수강자)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는 더욱 자연이라는 바탕에 기초를 두며, 그 기초에서부터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조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들에 대해 알아보는 생화학 수업의 경우, 우리 몸의 구성성분 중 어떠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 그 이상으로 딱딱 맞춰져서 돌아가는 우리 몸은 진화의 산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여 공부하는 우리들, 그리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유전학 수강자)

언어학을 수강하는 학생의 예에서도 성경의 사건이나 진리를 학문지식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학생은 말의 여러 가지 소리체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성경의 바벨탑의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함,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언어를 통한 하나님 찬양까지 적용하였다. 정치학을 공부한 또 다른 학생은 성경적 패러다임을

따라 정치학의 발달과 정치 시스템, 인간 제도의 한계를 살피는 통합의 형태를 보였다.

닭았지만 다른 각각의 언어들 배우면서 바벨탑 사건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지만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언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원래 하나의 언어였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명사와 동사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중략] 언어와 창조세계의 연관성, 우리가 창조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설명해주셨다. (언어학개론 수강자)

본래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셨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통치를 위임받은 한 명의 분봉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제한적으로나마 실현하는 대사였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인간에 의한 인간 통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속 정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중략] 이러한 성경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학의 발달과 현대 정치시스템을 바라보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통치시스템의 한계가 이해되었다. (정치학 수강자)

기독교적 원리나 세계관으로 재조명

이 유형은 기독교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고 이 바탕 위에 학문을 세우도록 학문을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 통합의 형태로 소수의 학생(총 16명 중 3명)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개설한 ‘기독교세계관’ 혹은 ‘학문과 신앙’ 과목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내용지식을 갖춘 경우이거나 교수가 기독교세계관적 통합을 수업에서 강조한 경우이었다. 특히 교수의 통합개념에 영향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의 재조명이며 어떤 방향의 재구성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업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모든 학문 활동과 직업 활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일치해야 함을 역설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그 일을 바라볼 때만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성과속”의 이분법의 안경을 벗고 모든 사물과 현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안경인 성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도전하였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현대정치에 대해 공부해나가면서 먼저 기독교적인 관점을 스스로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가령 9.11 테러 같은 국제정치 현상을 목격하면서 단순히 세상 미디어가 바라본 분석 및 해석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결코 기독교인으로서의 안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까지 우리의 관점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정치학 수강자)

학문과 신앙의 하나 됨, 초월적 접근

극소수(해당학생 1명)이기는 하지만 학문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학문의 길에 동행하면서 학문 영역에서 초월적인 영감과 지혜를 얻는 것을 통합으로 보는 학생도 있다. 이 학생은 통합의 모델을 초월적으로 해석하여 ‘학문과 신앙은 우리가 합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합하는 것’ 이니 ‘결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학문하는 것이고 학문과 신앙이 하나 됨을 인하여 결국 공부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 된다’ 고 보았다. 이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통합관을 갖고 있는 교수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통합관으로 인해 ‘신앙의 불을 살리는 불씨’ 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학문함이라는 구체적인 액션 속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함께 동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을 재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략] 건축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수님께서서는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될 때 그 분이 자신의 건축에도 친히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건축할 때 자신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창의성이 나온다고 하셨다. (크리스천 리더십 수강자)

2.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요소는 무엇인가?

사례 및 모델링

학생들은 어떤 수업활동을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경험했는지 살펴볼 때 그러한 통합을 시도하였던 인물이나 사례를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총 16명 중 7명의 학생이 언급하였다. 그 인물이나 사례는 현존하거나 현재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론 이전 세대의 경우가 되기도 한다. 건축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의 예를 들었고, 역사수업의 한 학생은 이전 세대 학자들의 예를 꼽았다.

그 예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를 들으셨는데, 가우디는 현대 건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피하고, 오직 자연을 교과서 삼아 자연이 가르치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건축을 했던 건축가이다. 우리는 조별로 가우디에 대해 돌아가며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가우디라는 건축가를 깊게 배우고 리서치 하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자신의 건축물에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연을 교과서로 삼으며,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고, 인위적인 구조보다는 자연적 구조, 즉 곡선 등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구조로 건축을 하였다. 우리는 건축을 배우는 과정에도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축학입문 수강자)

오래 전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일은 꽤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래 전의 똑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 어떠한 의견 차이를 빚었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역사와 인간 수강자)

때론 수업에 초청된 현장 전문가를 만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지 배우기도 한다. ‘직업과 소명’의 수업의 경우 외부 특강자를 초청하여 수업에서 다룬 이론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접경험과 통찰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별히 수업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과 그분들이 대면하는 세상에 대해 나누어 주신 것이다. 단지 수업시간동안 배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각자의 직장에서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셨다. 이분들의 삶이 묻어낸 진솔한 고백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과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들을 넘어 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질의응답 및 토론

통합에 대한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응답이나 소그룹 토론은 기존 이론의 한계나 잘못된 관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학습활동이다. 학생들은 세계관을 점검하는 질문과 씨름하면서 통합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토론을 통한 협력학습의 과정을 통해 기존 이론을 다시 한 번 분석고찰하며 배경이 된 관점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앞서 다룬 모델링 및 사례의 경우와 비슷한 빈도를 보여 총 6명이 언급하였다.

친구들과의 유전학 스터디 모임 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화론이 잘못됐다’ 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눈이 길러졌습니다.(유전학 수강자)

매 수업시간마다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주셨으며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앙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들을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조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평소에는 쉽게 다루기가 힘든 주제들이었으며 혼자서 고민할 때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다양한 전공과 신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을 때 내가 그려 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해졌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여 일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자기주도적 점검 독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교수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학생 스스로 기독교적 접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교수의 생각을 전달하기보다 결론을 유보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세이를 작성한 대다수 학생들이 스스로 통합의 시각을 발전시켜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한 하였고, 특히 3명의 학생들은 신앙과 통합에 대한 고민을 부각시켰다. 한 학생은 ‘치열하게 고민하여’ 결국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깨달았다고 표현하였다.

내가 국제개발가가 된다면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얻은 국제개발이라는 개념과 방법론을 실천하고 싶다. [중략] 나는 성경말씀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나의 신앙과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지식과 국제개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종합하여 정의를 내린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겠냐고 꽤 많이 말씀하셨다. (사회복지론 수강자)

한동의 철학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계속된 질문 시간 속에서 주위 사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성경적 내용에 바탕을 둔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물론, 교수님 역시 그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하지만, 수업의 뒤로 가게 되면 학생들은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으로 새로 고민을 시작한다. (철학개론 수강자)

때로 교수들은 학생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꼬리를 무는 질의응답으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추적하고 생각을 드러내게 하면서 학생 스스로 신앙과 학문을 연결하게 하기도 한다. 또, 적절한 때에 질문 던지기를 멈추어 학생 스스로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만들어 내고 생각하도록 하였고, 때론 답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묵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수업에서 언제나 선장이 정직하게 고백 한 것은, 혹은 선원들의 그네들만의 다음 항해를 위해 예비한 대답은, 나도 잘 모른다, 라는 기대치 않은 미소였습니다. [중략]

먼저 예의 바르게 학문을 이해하라, 그리고 언제나 너의 신앙으로 되문고 다시 학문에 비추어 점검하라. [중략] 고민하고 또 씩씩하고 괴로워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또 고민하되, 포기는 하지 마라. 그제 제가 배운 ‘정의’ 였습니다.” (‘Justice’ 과목 수강자)

제대로 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발성 기관 따위가 왜 필요할까?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말을 이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라고. 교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수업 후 혼자 조금 더 생각해보았다. [중략]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교수님은 우리 스스로 더 깊게 생각해보라고 그 정도에서 말을 멈추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언어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언어학개론 수강자)

세속 정치이론을 충실히 객관성 있게 공부하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한 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즉 창조적 주권자의 통치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현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늘 고민을 던져 주셨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정치학이라는 세속 학문을 기독교인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학기 내내 묵상하고 기도제목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정치학 수강자)

3.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뤄진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사고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학생들은 학문의 이론과 원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되었다고 보았다.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한 종합적 사고력은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력을 키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총 16편의 에세이 중 절반 정도인 7편에서 이러한 사고방법의 도전을 언급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양해 보이는 사람들의 견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깊

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는 여러 가지지만, 그 기둥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서로 다른 가지들이라고 해서 모두 자르고 한 가지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들은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기둥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간 수강자)

학문분야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나 태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수업에서 경험한 학생들은 학문의 분야를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게 된다. 나아가 한 학문영역에서 시도한 통합의 훈련은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학생들은 특정 개념에 대해 기독교적 해석과 응용을 시도하게 되면서 다른 학문의 영역이나 개념에 그러한 기독교적 조망을 확산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제한적인 생각이나 틀을 분석하고 깨뜨리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는 작업은 어느 과목이나 주제에서든 한 영역에서 먼저 시도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국제개발 수업을 들은 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연결 시키는 시도를 해봤기 때문이다. 처음 시도를 나름대로 잘 해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하고 신앙과 통합 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배운 학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의 목적이다. (사회보장론 수강자)

정치와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독교적 관점을 먼저 열어주셨다. 결국 이런 관점은 본인에게 다른 학문 영역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재해석과 재응용을 시도해볼 수 있게끔 하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정치학 수강자)

자신의 가치관 및 신앙인 정체성 점검 및 강화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수업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때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은 통합적 접근이 시도된 수업은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보다도 영성의 성장을 도왔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기독교

적 교육이란 영성과 지성, 그리고 행동이 총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통합을 경험하는 학생들로부터 뒷받침 된 셈이다. 총 16명 중 3명의 학생이 이러한 면에서 도움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다.

언어학개론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 1학년 가을학기가 어떻게 되었을 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 [중략] 언어와 창조세계의 연관성, 우리가 창조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설명해 주셨다. 또한 개인적으로 언어학개론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느꼈기 때문에 [중략] 강력 추천한다. (언어학개론 수강자)

통역가는 상이한 두 언어적 문화적 배경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교수님의 통역가에 대한 정의는 본인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였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라는 평화의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세상과의 단절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이다. [중략] 통역가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는 나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기존 개념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 및 재응용하는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통역입문 수강자)

현재 크리스천 대학생으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사고해야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이 수업 전반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였다. 학생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우쳐 있던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조명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 그러기 위해선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써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대학 생활, 우리의 대학 생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 수업이었다. (경제학 수강자)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인식

때로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보는 방향을 변경하기도 한다. 학문하는 일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통합의 정의를 내린 학생은 지식습득 면에서도 제3의 초월적 발견이 가능함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총 2명의 학생이 이러한 내용을 에세이에서 다루었다.

수업은 나를 돌아보고, 내 꿈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앙적 목적이 없이 그저

지식의 습득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략]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건축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사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건축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건축 공부가 신앙생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건축학 수강자)

또한 이 수업을 통해 신앙과 삶,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과 원리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접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일자리를 가진 후 부딪히게 될 실질적인 고민과 도전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신념’ 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자신의 직업과 지위에 상관없이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인생일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수업 시간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직업과 소명 수강자)

V. 결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수업사례를 기록한 에세이 분석을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수업현장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이해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개념은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원리, 그리고 그 이론과 원리의 전제를 분석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접근이었다. 즉 신앙과 학문을 두 진리의 영역으로 보고 과연 학문의 기본 전제와 가정이 기독교적인지 점검하는 모델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홈즈의 ‘윤리적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문지식의 분석을 위해 학생들에게 깊은 비판적 사고력을 요하게 되는바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에세이를 보면 비판적 사고력을 통한 통합접근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홈즈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시발점으로 ‘태도적 접근’, 즉 수업현장에서 교수와 학생의 신앙적 교감 및 교류, 관심과 사랑의 분위기가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미 기독교대

학의 학생들은 그러한 요소를 통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Burton & Nwosu,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통합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서 해당 대학의 교육철학, 통합에 대한 시각이 해당 대학의 문화와 수업에 반영된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대학은 학문의 융합을 교육의 특성으로 삼고 여러 학문 간의 융합뿐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학생들도 태도적인 면보다는 인지적인 통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인지적인 통합에서도 특히 사고력을 중시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입장을 분석하는 접근이 강조된다는 결과는 관심을 가질만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통합사례 에세이는 주로 인문사회분야의 교과목에 치우치고 이공분야는 소수에 그친다. 혹 인문사회분야의 학문하는 방법의 특성상 이론과 원리의 근거가 되는 전제나 시각을 분석하는 통합의 유형이 많은 것은 아닌지 싶으며, 이러한 점은 통합의 모델이 학문분야와 관계없이 다뤄질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합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에세이 분석결과를 보면 실제 대학 수업현장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통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의 사례제시, 통합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모델링, 분석적 시각을 키우는 질의응답과 학생토론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생들이 갖는 통합의 시각은 크게는 대학전체의 분위기나 강조점, 그리고 작게는 실제 수업에서 교수가 강조하거나 시도하는 통합의 사례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할 때 특정 기준이나 틀이 없이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 개념을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 ‘강조하셨다’ ‘가르치셨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문의 분야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과 학문의 선배 격인 교수가 개인적 의견을 나눈 것이라 하여도 결론적인 가르침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 기독교대학의 경우도 학생들에게 신앙과 배움의 통합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 수업에서 이뤄졌다고 했고 그러한 통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석한 결과 주로 교수가 주도한 가르침을 통해 이뤄졌다는 연구가 있다(Lawrence et al, 2005). 따라서 통합의 주체를 학습자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이 통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 점은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독교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하고 시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생들은 교과목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다룬다고 할 때 그 유형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지식습득이나 사고의 관점 습득 이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과목에서의 지식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훈련은 그 과목뿐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를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학문하는 목적 나아가 삶의 목적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였다.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강조하는 수업은 결국 그 어떤 영성 훈련이나 프로그램보다도 기독교적 가치와 태도, 정체성과 열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 수업을 경험함으로써 영성, 인성, 지성이라는 기독교대학이 의도하는 교육의 결과에 근접하고 있다면 개별 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교수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수들이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역량 강화방안이 앞으로 탐색되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유니온(Union)대학에서는 수업에서 신앙을 접목하기 위한 교수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레전트(Regent)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성경해석학을 공부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며, 캘빈(Calvin)대학이나 윗튼(Wheaton)대학에도 대학의 기독교정체성과 그 성격을 공유하기 위한 교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영복, 2006). 따라서 향후 국내외 기독교 대학들이 운영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살피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휴즈(Hughes, 2005)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교육내용 뿐 아니라 내용의 의미와 해석, 관점을 제공하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 숙고하여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어야 하며, 가르침의 결과 학생들이 하나님에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놀라움과 경이를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수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필 때에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분석하여 기독교대학에서 일어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경험적이고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의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로 인해 학문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동일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기독교대학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차이를 살피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 에세이 뿐 아니라 면접과 설문을 병행하는 방식도 시도할 수 있으며,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의 반응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신앙과 학문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습자들의 통합에 대한 인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받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어 대학 수업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어떤 다양한 유형이 있고 학문분야나 교수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인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유명복 (2006). “미국 기독교대학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진리논단』. 12 63-76.
- 전광식 (1995). “신앙과 학문의 통합”. 『통합연구』. 8(1). 9-25.
- 조용훈 (2004).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통합연구』. 17(1). 10-36.
- Badley, K. (1994). “The Faith-Learning Movement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Slogan or Substance?”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3(1), 13-33.
- Badley, K. (2009). “Clarifying ‘Faith-Learning integratio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and The Concept-Conception Distinc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s*, 13(1), 7-17.
- Beers, S. and J. Beers (2008).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Beers, S. (Ed). *The soul of a Christian university: A Field Guide for Educators*. Abilene: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 Burton, L. and C. Nwosu (2003). “Student Perceptions of the Integration of

- Faith, Learning, and Practice in an Educational Methods 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2(2), 101-135.
- Cosgrove, D. (2006). *Foundations of Christian Thought: Faith, Learning, and the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
- Dockery, D. (2000). “Integrating Faith &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http://www.uu.edu/dockery/092000-erlc.htm>
- Entwistle, D. (2004). *Integrative Approaches to Psychology and Christianity: An introduction to Worldview Issues, Philosophical Foundations, and Models of Integration*. Eugene, OR: Wipf and Stock.
- Glanzer, P. (2008). “Why We Should Discard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Rearticulating the Mission of Christian Scholar.”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s*, 12(1), 41-51.
- Hasker, W. (1992). “Faith-Learning Integration: An Overview.” *Christian Scholar’s Review*, 21(3), 234-248.
- Harris, R. (2004).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Eugene, Ore: Cascade Books.
- Holmes, A. (1987).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Eerdmans Pub.
- Hughes, R. (2005). *The Vocation of a Christian Scholar: How Christian Faith Can Sustain the Life of the Mind*. Grand Rapids, MI: Eerdmann.
- Johnson, E. and S. Jones (2000). *Psychology and Christianity: Four View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Kang, J. (2007). “Faith Integration as a Way of Know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2, 69-83.
- Matthias, L. (2008). “Professors Who Walk Humbly With Their God: Exemplars i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t Wheaton College.”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2(2), 145-157
- Lawrence, T., Burton, L., and C. Nwosu (2005). “Refocusing On the Learning in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4(1), 17-50.
- McMinn, M., Moom, G., and A. McCormick (2009). “Integration In The Classroom: Ten Teaching Strateg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7(1). 39-47.
- Moon, G. (1997). “Training Tomorrow’s Integrators In Today’s Busy Intersection: Better Look Four Ways Before Cross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5, 284-293.
- Nwosu, C. (1999).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Christian Higher

-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and Classroom Implement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0(4), 1044. (UMI No. 9929070)
- Son, J. (2006). “Faith and Learning Integration As a Model for Enhancing Christian Lib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45(1), 207-229.
- Sherr, M., Huff, G., and M. Curran (2007). “Student Perceptions of Salient Indicators of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he Christian Voc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6, 15-33.
- Sites, E., Garzon, F., Milacci, F., and B. Boothe (2009). “A Phenomenology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7(1). 28-38.
- Wolfe, D. (1987). “The Line of Demarcation Between Integration and PseudoIntegration.” In Harold Heie and David Wolfe, eds., *The Reality of Christian Learning: Strategies for Faith-Discipline Integra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University Press.
-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http://www.cccu.org>
Regent University <http://www.regent.edu/admin/ctl/consult/faith.cfm>

Abstrac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n Analysis of Student Essays

Eun-Sill Rhee(Handong University)

One of the key features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his study is to explor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cluding possible learning activities helpful for such integration, and perceived influence of the integratio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ion varies widely. From an analytic approach where premises and assumptions made for a specific field were critically analyzed, the integration is understood as an application of biblical principles to a content area and also as a reconstruction of content knowledge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Students consider exemplary figures and cases introduced during the course to be the most helpful learning activity for their integration efforts. Classroom discussions also enhance their orien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knowledge from Christian perspective. It is also found that students' exposure to the integration efforts in a subject area motivates them to continue such efforts in other areas as well.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in order to examine possible differences in integration approaches across subject areas.

Key words: integration, faith and learning, Christian Higher Education, teaching methods